

신안군 군목 '소나무→나한송' 변경... 지자체 유일

가거도 수령 274년된 나한송 자라 군민들의 시련·역경 상징성 더해 지도읍에 4500주 식재 10리길 조성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 상징 조례' 개정을 통해 군목을 기존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안군의 군목 변경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신안군을 포함한 34개 시·군에서 소나무를 상징물로 지정하고 있어 상징성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 데 따른 것.

가거도 자연 상태로 자라고 있는 수령 274년 나한송은 군민들이 겪은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는 상징성에 의미를 뒀다.

'나한송'은 단순한 수목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신안군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물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신안군은 밝혔다.

신안군은 나한송을 군 상징목으로써 자리매김을 위해 신안군 지도읍에 나한송 4500주를 심어 10리 길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40리 길을 추가로 만들어 전체 나한송 50리 길을 조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군 상징목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나한송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전국 자치단체 중 군목으로 지정된 유일한 자치단체로, 이번 조례 개정은 신안군만의 상징성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결정"이라며 "신안군만의 특색을 강조함으로써 군민이 스스로 자신이 특별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 상징 조례' 개정을 통해 군목을 기존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변경했다. 신안군 제공

베트남 계절근로자 본격 투입 강진군

강진군은 도암농협에서 지난 23일 베트남 계절근로자 20명을 위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24일 밝혔다.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하우장성 풍합현 출신들로 강진군과 하우장성 및 풍합현이 상호 조건을 협의했고 근로자 모집도 풍합현이 선발해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했다.

계절근로자 운용 방식도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아닌 공적 단체인 '도암농협'이 책임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채택해 믿을 수 있는 인력 공급과 함께 베트남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군에서는 계절근로자가 국내 체류 기간 숙박하게 될 숙소를 군에서 임차해 군비를 투입, 직접 수리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하는 숙박비를 1인당 월 12만원 정도로 책정해 법무부 지침(임금의 30% 이내)이나 타 지자체에서 월 30만원 정도의 부담 수준보다 현저히 낮췄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마약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간단한 한국어 교육, 농작업 안전교육 및 근로기준법, 외국인들의 국내법 위반사례교육 등 적응 기간을 거쳐 26일부터 영농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강진=김운복 기자



컨테이너선 동시 명명식 대한조선, 8000TEU급 3척

대한조선은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수주 받은 80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23일 해남 조선소에서 동시 명명식을 가졌다.

선박의 이름은 각각 '캐서린 C', '그린랜드', '그린빌'로 명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조선 김광호 회장을 비롯해 선주사와 선급 감독관 등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대한조선이 지난 2022년 4월 그리스 해운선사 다나오스로부터 수주해 컨테이너시장 진출을 알렸던 8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가운데 3척이다. 이들 선박은 길이 272m, 높이 24.6m, 폭 42.8m 규모로 오는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해당 선박들은 모두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향후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탄올 레디 선박으로 설계된 점과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시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AMP(육상전원공급)장치,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치 등 친환경적인 설계가 적용됐다.

이번 선박 건조는 그 동안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이 탱커선(석유제품운반선 및 원유운반선)에서 중형급 컨테이너선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납기와 품질까지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해남=전연수 기자

출범 10개월만에 성과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

'1섬 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에서 나고 있는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이 출범 10개월, 묘목생산 시작 2년 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이 국내 최대 나무시장 1등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대림묘목농원 JB가든센터와 정원식물 판로개척에 성공했다.

전국 최초 출범한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정원식물을 수출입하는 유통사인 JB가든센터에 10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JB가든센터 김정범 대표는 "JB가든센터는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의 주민참여형 양묘소독사업 지속가능성과 경관수목 등의 품종 관리의 우수성을 믿고 이번 계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은 현재 경관식물 생산에 3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조합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신안군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문외는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으로 하면 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영암군, 무화과 해충 피해 최소화 집중 예찰·현장기술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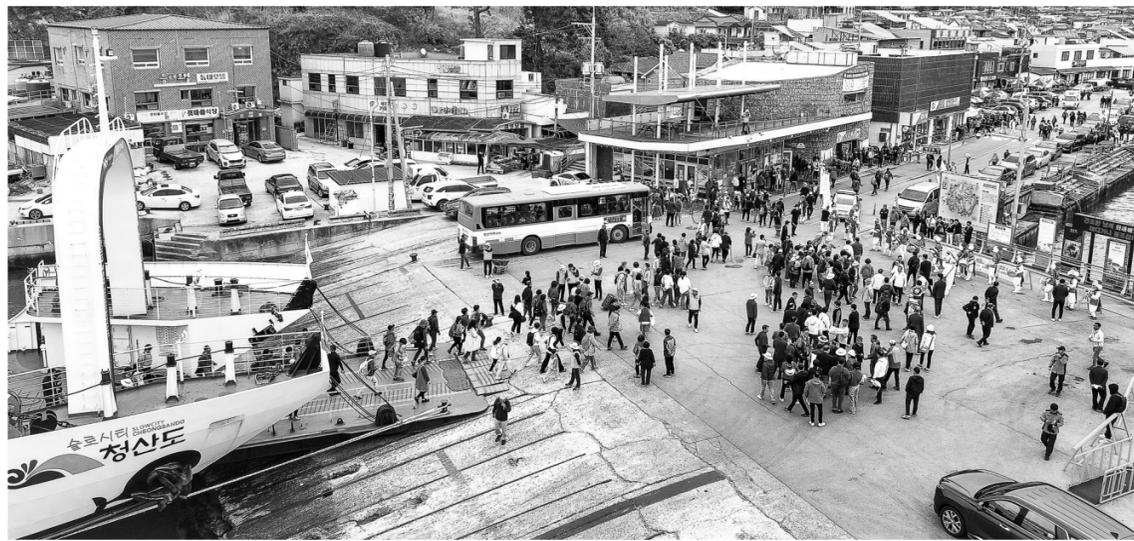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무화과 병해충 예찰조를 편성해 집중 예찰 활동에 나서고, 현장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활동은 무화과 재배농가의 무화과곰보바구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이다.

무화과곰보바구미 성충은 나무 밑동 주위 땅속에서 서식하다 야간에 줄기를 타고 올라가 어린잎이나 과실을 갉아 먹고, 유충은 나무 밑동 목질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심할 경우 고사에 이르게 하는 해충이다. 최근 그 피해 면적도 증가하는 추세로, 방제법은 야간에 손전등을 이용하여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가는 성충을 잡거나, 접촉성 살충제 비펜트린·베타사이플루트린 분제 등을 뿌리면 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화과곰보바구미 성충의 활동 시기인 지금 예방적 집중 방제로 무화과 농가에서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총 3만3000여명이 다녀갔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총 2만2000여명이 방문해 완도항과 청산도 주요 관광지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완도군 제공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청산완보·기 치유 인기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완도 청산도에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총 3만3000여명이 다녀가며 막을 내렸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총 2만2000여명이 방문해 완도항 및 청산도 주요 관광지가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했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완보'에는 1937여명이 참여해 슬로길을 걸으며 유채꽃이 활짝 핀 청산도의 봄

을 만끽했다.

강한 자성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 불리는 청산도 보적산 범바위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기(氣) 치유' 프로그램에는 250명, 은하수 출사를 떠나는 '별이 빛나는 청산도'에는 60여명이 함께 했다.

군은 범바위 기(氣)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 해조류, 허브 맥반석, 소리, 향기 치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산 해양치유공원을 찾는 발길도 꾸준히

완도=최경철 기자

강진군, 지구의 날 기념 푸소생태탐험대 선보여

기후 위기 대응 교육 등

강진을 대표하는 농촌체험형 관광상품인 푸소(FU-SO)체험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새로운 친환경 학생푸소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기존 학생푸소(FU-SO)체험은 강진의 대표 관광지 투어와 함께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에서 1박 2일 또는 2박3일간 생활하며 농촌의 여유와 감성은 채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는 풀어가는 농촌형 체험 관광으로, 지난 9년간 3만7000명의 학생이 다녀갔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관광 시장이



활성화되며 22일 기준 36개 학교 6000여명의 학생들이 푸소 체험 예약을 마친 상태이다. 여기에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광주지역 환경시민단체 학생·일반인 30명이 지난 20일 강진을 방문했다.

이어졌다.

축제는 끝났지만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평일)해주는 이벤트는 30일까지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협조 덕분에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슬로시티 청산도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지구를 지켜라! 푸소생태탐험대'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일상 생활 실천 행동을 주제로 진행된 '봄바람 환경학교'와 '줍깅' 활동이 포함된 새로운 푸소 체험이다.

푸소생태탐험대는 봄철(3~4월)에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봄바람환경학교'를 가을(11월)에는 강진만생태공원에서 탐조활동을 중심으로 한 '강진만철새학교'를 중심으로 3개월동안 운영한다.

참가 신청 방법·기타 문의는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061-430-3314)로 하면 된다. 강진=김운복 기자